

제28차 정기이사회 주요 의사록

1. 회의개요

- 일 시 : 2017년 2월 27일 월요일 11:00 ~ 13:30
- 장 소 : 달개비식당(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
- 출석현황 : 총 재적이사 8명 중 8명 참석
- 참 석 자 : 김상헌 이사장, 고희경 이사, 김윤철 이사, 안호상 이사,
윤태봉(윤소정) 이사, 이상우 이사, 이영열 이사, 정재승 이사
- 특기사항 : 정광호 사무국장 직무대리(간사)

2. 보고사항

- 제27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및 의결 처리결과
- 국립극단 2016년 주요 사업실적

3. 심의안건

- 제1호 의안 : 국립극단 2016년도 결산(안)

4. 의결결과

- 제1호 의안 : 국립극단 2016년도 결산(안) - 원안가결

5. 기타사항

- 제28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1부.

주요회의록

2017.02.27

○ 의 장 : 재단법인 국립극단 이사장

<성원보고>

이 사 장 : 국립극단 제28차 정기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께서는 성원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8명중 전원이 참석하셨고, 감사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 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립극단 제28차 정기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에는 보고안건 2건, 심의안건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고사항 보고, 안건 심의 순으로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 사 장 : 첫 번째 보고안건은 지난 27차 정기이사회 의사록과 의결 처리결과입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3쪽 “제27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및 의결 처리결과” 설명함

이 사 장 : 보고사항 1호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사실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이사회 때, 의결을 해서 신임 이사들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간 사 : 별도 첨부된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설명함

이 사 장 : 우선 큰 질문 없으시면 보고사항을 접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이 '16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이므로 신임 이사진의 이해를 돕도록 예술감독님께 '17년 사업의 방향성을 듣고 그때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전체이사 : 없습니다.

이 사 장 : 다음 보고사항은 국립극단 2016년 주요사업 실적보고입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4~7쪽 “2016년 주요사업 실적보고”를 보고함

이 사 장 : 보고사항 2호에 대해 보고 받으셨습니다. 더불어 예술감독님의 '17년 사업 방향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윤 철 : 2017년은 그동안 국립극단이 창작 신작에 대한 작업을 하고 그 결실을 맺는 해입니다. 작년 ‘작가의 방’을 통해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고 작품을 토론하며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올해 그 결과로 <광주리를 이고 가시네요, 또>를 상연합니다. 블랙 코미디를 맛볼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작극은 극단의 소명으로 기성 작가의 작품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배삼식 작가의 <1945(부제: 모두 다 내 남편이다)>를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의 희극작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주목받는 작가들 작품을 젊은 연출가를 통해 무대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비어천가>를 쓴 영진 리는 미국 실험연극의 보석으로 불립니다. 또한 인스 최의 작품 <김씨네 편의점>은 작년, 재작년 캐나다 최고의 화제작으로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널 위한 날 위한 너>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인권에 대한 작품이며 <가지>는 음식 만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고 <이건

로맨스가 아니야>는 입양아가 자기 뿌리를 찾는 작품입니다.

특히 세계고전에서 주목하는 작품은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영국의 각색가인 로버트 아이크가 완벽한 각색을 했다”는 찬사를 받았으며 번역극이지만 우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작품으로 한태숙 선생이 연출을 맡습니다. 그리고 세계고전 두번째로 <십이야>를 예정하였으나 임윤택 연출의 고사로 <메저투메저>로 작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연말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작년 <실수연발>처럼 시즌단원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 형식을 그대로 이어가며 셰익스피어의 문제적 코미디를 통해 시대와 인간의 본질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태석 선생의 작품을 초청해서 공연하려 합니다. 그간 오태석 선생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부단히 발전시켜 오셨는데 올해는 완결편을 만들고 싶다하셔서 초청작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련 작품의 큰 흐름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중점으로 두고 세계고전을 통해 오늘날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작품을 염두하였습니다. 작년에 우리극단은 해외 연출자를 6명이나 기용한 점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기획의도가 있었지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 들입니다. 올해는 <메디아>를 예외하고 한국 연출자, 특히 젊은 연출자를 중점적으로 기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외한인작가전’을 통해 창작극에의 방점을 찍고자 합니다.

이 사 장 : 말씀하신 작품들만 들어도 기대가 되고 즐겁습니다.

김 윤 철 : 우리가 국제교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제국>이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초청을 받았고 <로베르토 주코>,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을 중심으로 해외투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십이야>를 유럽 6개국에서 이미 초청 받았지만 <메저투메저>로 작품이 바뀌게 되었지만 한국적 셰익스피어 작품으로 충분히 대체할만하다 생각합니다.

이 사 장 : 국립극단이 국가를 대표하는 극단이기에 민간이 할 수 없는 작품을 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극단을 운영하신 듯합니다.

정 재 승 : 궁금한 점은 <빛의 제국>를 외국에서 공연하면 배우나 스태프는 우리쪽 사람이 하는 것인가요?

김 윤 철 : 네, 배우는 우리 배우가 참여 하며 스태프에서 핵심은 우리가 하고 현지 스태프 협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정 재 승 : 파리와 스위스 공연에 한편당 1억 정도의 예산이 들면 초청국에서는 얼마를 부담하는 것인가요?

김 윤 철 : 약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지 스태프를 통해 금액을 줄이고자 하며 16회 공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영 열 : 회의 전에 네이버의 후원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국립단체에서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에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극단이고 소극적으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국립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결정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중국공연에 대해 여쭙보고 싶습니다. 중국공연에 할 때 차질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한한령 때문에 그런 것이었나요?

김 윤 철 : 사드 때문에 그랬습니다. 통관이 지체 되어 무척 힘들었지만 공연에 대한 반응은 너무 좋았습니다. 중국 평론가들도 “중국에서 제작한 작품 예산의 1/10 정도로 수준 높은 공연을 제작하였다”며 호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쭈저우 연극제에 초청의뢰가 들어왔지만 “여타 조건을 충족할 때 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왔습니다. 국가 간 정치 문제가 해소되면 상호 간에 교류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사 장 : 근래 드물게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 화제이고 다만 우리내용이라기 보다는 중국고전이어서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충분히 더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 열 : 유럽의 베네룩스 3국이 “유럽을 위해 봉사한다”는 말처럼 다른 나라의 작품을 가져오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여쭙보겠습니다.

김 윤 철 : 공연 결과보고를 올리었고 결과를 놓고 보면 공연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안 호 상 : 국립이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개척해야 하고 해외공연이나 새로운 관객개발, 신진작가나 연출가를 양성하는데 방점을 찍어겠습니다. 사실 현재 문제는 민간과 국립의 활동이 중복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연출가를 국립에서 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간 해온 방향과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 재 승 : 그러면 올해는 민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요?

김 윤 철 : 올해는 오태석 선생의 작품을 기획초청하려고 하고 사실 극단작품에 민간이 70% 정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의 민간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선언적 홍보가 부재한 것이 사실이고 민간과의 채널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민간과 소통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 장 : 그리고 시즌단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단위로 선발을 하는 것인가요?

김 윤 철 : 1년마다 20명을 선발합니다.

정 재 승 : 단원은 월급제인가요?

김 윤 철 : 월급이 아니고 출연료 개념입니다. 의무적으로 최소 3편을 참여해야 하고 최소 2,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입니다.

정 재 승 : 그렇다면 동기가 무엇인가요?

김 윤 철 : 살아남는 것입니다. 다음 시즌에도 선발이 될 수가 있고 배우들이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이 사 장 : 출연료만으로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정 재 승 : 국립극장도 시즌단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안 호 상 : 국립극장은 전속단원으로 대가가 2,400~4,500만원 정도입니다.

김 윤 철 : 한 작품에 15개의 배역이 발생하는데 1년에 20작품을 하면 300개의 배역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시즌단원이 60개 배역을 밖에 소화를 할 수가 없고 나머지 배역은 충당이 어렵습니다. 현재 국립극장의 래퍼토리 시스템을 꿈꾸고 있는데 가능하려면 단원이 60명은 되어야 합니다.

윤 소 정 : 그러면 월 지급료나 거마비 등 수당이 있습니까?

김 윤 철 : 말씀하신 부분에 출연료가 더해집니다.

정 재 승 : 스태프는 어떻게 됩니까?

김 윤 철 : 십여 명의 극단 스태프가 있으며 객원 스태프는 계약으로 운영을 합니다.

정 재 승 : 그 분들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김 윤 철 : 직원 월급으로 경력에 따라 산정을 합니다. 덧붙여 현재 극단 이직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 소속단체보다 연봉이 낮습니다.

이 사 장 : 늘 예산 이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고 심의안전에서 더 말씀 나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국립극단 결산(안)입니다. 안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10쪽 “2016년도 결산(안)” 설명함

이 사 장 : 그러면 김성규 감사님 의견을 들겠습니다.

김 성 규 : 국립극단 경영관리팀의 업무에는 신뢰가 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잉여금에 관한 문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이 취소됐거나 수입이 증가할 때 혹은 비용을 절감할 때 발생을 합니다. 이런 잉여금을 늘 예산에 편성을 해왔는데요. “이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가?” 국고를 상쇄하는 꼴이 되어버리는데 조직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극단의 자생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자율이 낮고 잉여금이 적은 극단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극단에 도움이 될 방법이 찾는 것입니다. 극단의 인재를 구하거나 국내 연극계를 위해 지출하거나 극단 공간 마련을 위해 비축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충무아트홀의 경우, 매년 몇억씩 장기 수선을 위한 충당금으로 적립을 해둡니다. 회계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면 차기 예산에 편입할 것이 아니라 잉여금 처분을 통해 예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목적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후원금의 경우도 이런 관점에서 모금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 회의 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영 열 : 그런데 정부회계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문체부 차원보다는 기재부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 성 규 : 사실 재단은 독립된 법인격체인데 정부회계를 맞추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독립법인이면 그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른 재단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 장 : 얼핏 들으면 네이버에서 후원을 엉뚱하게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허망하기도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극단에서 다음 회의 때, 의제로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재 승 : 결산보고에서 낮은 것은 민간의 경우, 자본의 논리로 경영을 하지만 극단은 국립단체로 소셜 임팩트가 존재의 이유인데 계량적인 지표도 중요하지만 “큰 상을 받거나 연극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등” 꼭 숫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 장 : 이번 안전은 회계 쪽 결산안전이었지만 꼭 KPI가 아니더라도 평가 지표를 개발해서 의미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영 열 : 말씀하신 것이 국립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따뜻한 아이스크림’처럼 좋은 작품을 만들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맹점입니다.

이 사 장 : 그럼 다른 질문이나 이의 없으시면 제1호 안전 (재)국립극단 2016년도 결산(안)은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이사 : 이의 없습니다.

이 사 장 : 그럼 제28차 정기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날인함.

이사장	김상헌	(인)	이 사	고희경	(인)
-----	-----	-----	-----	-----	-----

이 사	김윤철	(인)	이 사	안호상	(인)
-----	-----	-----	-----	-----	-----

이 사	윤태봉	(인)	이 사	이상우	(인)
-----	-----	-----	-----	-----	-----

이 사	이영열	(인)	이 사	정재승	(인)
-----	-----	-----	-----	-----	-----